

## 2 천년대를 향한 축산전망

낙농업계가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 소산업이 위기에까지 처하게 된 시점에서 평상시 축산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 할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80년도에는 축산진흥회에 「축산물 비교우위 분석과 수출입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78년에 쇠고기 4만 5천톤 수입으로 전국의 농민이 반발했는데 옥수수 4백만톤이나, 그리고 밀·콩을 합해 6백만톤이 수입되어도 농민이 반발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쇠고기 수입에는 이렇게 거센 반발이 있는가를 연구하여 여기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었다. 당시 일반경제를 연구하거나 KDI 연구자, 혹은 경제기획원 정책입안자들은 우리나라 소는 희망이 없고 비교우위가 없어서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따라서 쇠고기는 수입해야 하며 분유도 수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팽배해 있을 때였다.

그러나 연구분석 결과 농가에서 한두마리 농가부산물로 기르는 소는 비교우위가 있었다.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기술을 개발하고 품종을 개발하고 초지를 개발하면 우리나라 초식가축을 중심으로 20년 후에 축산국으로 될 것이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당시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조소했고 그래서 외로웠다. 그러나 참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비교우위가 없어서 사라질 것이라는 한우와 우유가 남아서 처치곤란이라니...

학자는 모름지기 인기나 여론에 관계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84년 1월부터 주곡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은 비교우위가 없으므로 수입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KDI 주장에 대해서도 낙농은 아직 유치산업이지만 우리 농업의 주된 종목은 초식가축이므로 유제품을 수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했고 유럽이나 일본에 뒤지지 않는 생산비인데 유제품 수입은 덤핑이라고 학자적



허 신 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응용경제학박사

·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기술을 개발하고  
품종을 개발하고 초지를 개발하면 우리  
나라는 초식가축을 중심으로 20년 후에  
축산국이 될 것이다

인 진실을 강조했었다.

지금 농촌의 심각한 소값 파동문제에 대해 주로 언론에서 '83, 84년도 소 수입과 쇠고기 수입을 원인으로 보고 있고 학계와 농민들은 소매 정육점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78년에 4만 5천톤의 쇠고기 수입에도 '79, '80년에는 파동이 없었고 7만 4천두의 소 수입이 전체 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원인으로 보기에 설득력이 없다. 또한 '81년에서 '84년까지 암송아지 가격이 332%나 인상하였음에도 정육점 가격은 54% 인상하였으므로 값이 떨어질 때도 적게 떨어지게 되는 이유인데 이것으로 소값 파동을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소값 파동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복합영농을 위해 '82년도에는 289억, '83년도에는 873억원의 자금을 풀어 소를 길러 소득을 올려보라고 했다. 쇠고기는 매년 수입하니 아무리 길러봐도 설마 100%를 다 충당하겠느냐고 생각했던 것이다. 당시 1백52만두였던 소 1마리당 5만 7천원꼴로 돌아갔고 한정된 송아지 숫자에 값은 계속 올라 1백 7만원까지 뛰었으니 암소는 아무도 잡지 않을 정도였다. 농민을 위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소값 파동을 일으키도록 숫자는 계속 늘어난 것이다. 국회에서 「축우산업의 진단과 소값 안정대책」으로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농수산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하여 동기가 어찌되었건 농수산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소사육농가에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기해 주고 다른 정책에도 우선혜택을 주며, 수매를 실시하는 등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였다.

「주부교실」에서도 소매정육점이 영세하다 보니 마진폭이 적어 물의를 일으키니 주부들께서 값싼데 가서 사고 정육점으로 하여금 경쟁을 시키고 소비자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혼란시키라는 것을 강조하였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해도 없

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우유 생산은 '62년도에 2천 6백톤이던 것이 '84년에는 84만톤으로 늘어 연평균 30%씩 증가하였고 소비량은 '84년에 83만 3천톤으로 연평균 29.9%씩 증가하였다. 무리한 수급계획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84년의 경우 생산이 18% 증가한데 비해 소비는 14.4%증가에 그쳐 수급사정에 문제가 있었다.

6월 15일 현재의 재고는 전지분유가 7천 4백 38톤(288억원), 탈지분유 1천 5백 26톤(66억원), 버터 1천 77톤(33억원)으로 약 387억원에 해당되는데 이를 3만 7천호 기준으로 농가에 환산해보면 농가당 약 1백만원치씩 재고를 보관하는 셈이고 소 1마리당 11만 5천원씩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원유로 환산해 보면 약 11만톤 정도가 되는데 '84년 총 소비량의 약 13% 정도가 되는 셈이다. 그리 큰 재고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집유를 거부하고 대금지불이 늦어지는 등 마찰과 긴장이 고조되자 장래에 대한 불확실에서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재고가 누적된 원인은 '84년 이후 소비량의 절대적인 양이 감소했는데 여기에는 독극물 사건의 영향과 '84년 1/4분기에서 '85년 1/4분기동안에 실질소득이 3.9%밖에 성장하지 않아 소비자 가구의 쓰임새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국민들간에 외채 긴장고조로 수입품의 소비절약으로 외채를 절감하자는 캠페인이 강하게 일고 있어 주부들이 쇠고기나 분유가 수입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서 오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세번째 재고누적 요인은 유산균음료, 두유, 청량음료 등의 위협이다. 그리고 유제품에 대한 10%의 특별소비세 부과 및 원유가격 인상에 뒤이어 시유 용량을 늘리면서 유제품값 인상이 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유는 가격탄력적이므로 제품가격의 하락폭보다 소비량이 더 늘어

수출대신 국내시장에다 덤핑 판매하여  
손해 보더라도 우리 소비자에게 돌아가  
므로 장래의 시장확보를 위해 국민들에  
게 우유를 인식시키는 기회로 하였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게 되는데, 과감한 소비의 저변확대책이 필요하  
다고 본다.

생산공급 과잉측면에서의 재고누적 원인을 살펴  
보면 '75~'84년 사이에 연평균 8천 8백61두의젓  
소가 도입되어 좀 많이 수입된 느낌이고 작년 한해  
동안 수입된 유제품이 2만 4천 8백84톤인데 비해  
지금의 재고는 1만톤 미만인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니와 금년 상반기에도 6천 6백톤이 수입됐다.  
수입정책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농가에서 경영개선으로 착유우 두당 1.43%  
의 착유증량으로 생산증대의 요인으로 작용했고 소  
값이 싸지자 노폐우도 적은 산유량이지만 보유하는  
편이 낫다는 계산에서 기르다 보니 생산증대로 재  
고는 쌓이게 되었다.

앞으로 기분 좋게 빨리 해결할 특별한 방법이 없  
으므로 학자나 농민 당국자·소비자·유가공업자  
모두가 누구를 타하기 전에 노력하여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본다.

첫째로 분유수입을 일체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다  
소 비싸더라도 재고품에서 대체하도록 하며 송아지  
대용유 생산을 국내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필요하며  
생우의 도입도 억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유제품 특소세를 없애거나  
줄이도록 하여 20%의 시장점유율에서 이젠 우유  
가 아이스크림·빙과류·시장을 다 차지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5백만 국민학생중 34.1%  
만 급식하는 학교우유 급식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군납품 우유를 증대시켜 잠재수요 개발은 물론 국  
민건강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소비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남아도는 우유를 국내가격의 28%밖에 안되는 외  
국시장에라도 수출한다고 하지만 수출대신 국내시  
장에다 덤핑판매하여 손해보더라도 우리 소비자에  
게 돌아가므로, 장래의 시장확보를 위해 국민들에

게 우유를 인식시키는 기회로 하였으면 좋을 것으  
로 생각한다.

2천년대를 향한 낙농산업의 전망은 만약 수입개  
방만 되지 않는다면 낙관적이다. 농업분야에서는  
가장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국토의 66%인  
산지를 잘만 이용하면 앞으로 주식은 유제품으로  
변했으면 하고 바란다.

우유의 소비전망은 '91년도에는 1인당 연간소비  
량이 30kg, 2천년도에는 60kg으로 늘어나 공산품  
중에서 유제품만큼 소비가 늘어나는 제품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혹시라도 염려되는 것은 비싸다고  
수입을 자유화해서 채 일어서기도 전에 불구자로  
만들지 않을까 두렵다.

'80년도에 축산을 연구하면서 2천년대까지 우리  
나라 축산발전의 단계를 지표로 압축하였었다. 거  
기에 의하면 '67년도까지는 전통적 영세부업축산  
이었고 68~72년까지는 소규모 축산이룩단계, 73~  
79년은 도약단계, 그리고 80~90년대 말까지는 중  
·대규모 전문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대로 적중되고 있다. 양계는 91%, 낙농은 66%,  
양돈은 49%이상이 전문화 되어 있고 한우는 3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서의 숫자가 53%이고 농가호  
수로는 24%가 차지하는 현실이 좋은 예이다. 따라  
서 2천대에는 고능력 안정생산으로 수급 불균형,  
가격등락 문제 등이 지금보다 훨씬 적게 될 것이고  
생산비도 줄어들며 축산업이 본래도에 올라서게 될  
것으로 예언할 수 있다.

소 사육농가 여러분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여  
우리나라 농가 모두가 불황에 못이겨 망한다 하더  
라도 나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경  
영을 합리화하여 생산비를 줄여나간다면 그것은 곧  
나 자신이 살고 농민이 사는 길이며 나아가 소비자  
와 국가를 위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힘을 모아 이  
불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